

2008년 10월 14일 화 말씀

휴가 내서 쉴 때는 월명동에 오십시오. 내가 나가면 월명동 고향에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 있으면서 세계로 뿔 것입니다. 해외 회원들도 다른 나라 가지 말고 한국 월명동으로 오십시오.

근처에 캠퍼스가 있으면 캠퍼스를 중심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한번 밀어붙이면 됩니다. 몇 십 명 가지고 안 됩니다. 전도 잘 하는 비법을 내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사탄들이 ‘참 열심히 하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너희들 다 점령할거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속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어떤 사람이나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책을 보는데 싱거워서 못 보겠더라고 했습니다. 내 설교집을 보고 주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왜 안주냐고 하니까 보면서 다 베끼느라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 베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책도 베끼고 잠언도 베끼고 그래서 내가 빌려준 내 책을 안 줍니다. 내 책은 세상에서 판매를 안 하니까 어디서 이것을 살 수 있냐고 합니다. 결국 말씀을 시원하게 전하면 최고입니다. 그 대신 말씀을 받고 전하려면 그 만큼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한번 할 때 해 대끼면서 밀어붙이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방에 처 박혀 있고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도 원래 가만히 방에 혼자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20년 동안은 굴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만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나고 다니라고 너를 그렇게 만들어 났으니 사람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세계 50개국으로 밀어 붙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역경이 있는 만큼 100배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정신 문제 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는 21년 동안 정신을 갖췄습니다. 이번에도 정신을 갖춰야 합니다. 정신이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깊이 꽂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잠깐 전해주면 사람이 그냥 얻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 그냥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니까 그러면 그냥 얻은 것이 잘 얻어진 것인지, 누가 준 것인지, 자기가 쓰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면 이게 하나님이 준 것 같지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하면서 같이 하늘도 도우면서 해야 그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한번 그렇게 사람 길러봐라. 그냥 계속 줘봐라. 그 사람이 사람이 되냐? 안 되지. 왜 하늘 보고 그냥 달라고 하느냐?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눠주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도 치고 해야 주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편하니까 할 일이 없어 죽는 것입니다.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는 밖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바깥에 있으면 수십 개국 나라 계속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말씀 전해야 하니까 잠을 못자서 완전 피곤하고 과로가 왔을텐데 여기서는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조정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면 헛일입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한 것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남남이고 나와도 남남입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리신 일입니다.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보였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날 이야기 하셨습니다. “너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과거에 잘 된 것처럼 앞으로 잘 해줄게.”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일해야 합니다. 100만 선교 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정신적 부활을 하면 육신이 부활이 됩니다. 해외 회원들은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십시오. 힘들면 왔다가 또 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혹사를 시켰어도 힘이 안 듭니다. 예수님이 ‘내가 늘 쫓아다니면서 관리해 주고 붙잡아 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모르느냐’ 하셨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는 사람들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